

한전, 광주·전남에 ‘신재생발전 관제시스템’ 준공

ECONOMY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전국 거점 확대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지역기반 정착 시동

한국전력이 광주·전남지역에 신재생발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한전은 18일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지역 신재생발전 관제시스템(LRMS)’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 이재철 에너지기술개발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송전망에 연계된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신재생발전 출력예측과 수용 한계량 산정, 신재생 출력제어가 가능한 ‘지역 신재생발전 관제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와 별도로 배전망에 연계된 신재생에너지는 기 구축된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을 통해 실시간 감시·운영 중이다.

이번 LRMS 시스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연계된 전력 계통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계통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번 LRMS 시스템을 시작으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관제시스템을 전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광주·



한국전력은 18일 광주전남본부 전력관리처에서 ‘지역 신재생발전 관제시스템(LRMS)’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 지역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기반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거점 지역”이라며 “이번 관제시스템 가동으로 신재생 수용 능력을 높이고, 전력 계통 안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38.6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전력계통에 연계돼 있다. 이 중 약 7.1GW가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이승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증기청, 지역 수출전략세미나 마케팅·美관세 동향 분석 공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오후 2시 광주호수에서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 및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마케팅 전략 공유, 미국 관세 동향 분석,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나경우 증기청 수출지원센터 팀장이 ‘미국 관세부와 관련 최신 동향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을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나 팀장은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자금, 수출, R&D 등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 설명을 했다.

2부에서는 임수옥 비제이코리아 과장이 자사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임 과장은 “고객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현재 미국 대형 유통기업과의 지속적인 납품 계약 사례를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송대용 기자

증기중앙회 지역본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회 업종 완화 등 현안 논의...복지서비스 확대 목소리

증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광주·전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용기 전남대학교 교수와 정관호 조순욱 대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란우산 운영 현황과 올해 운영계획, 주요 현안, 복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의해 지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제한업종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노란복지서비스 관련, 콜센터 확대와 휴양시설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더 많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사업이다.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5월 기준 재적 가입자 180만명, 부금 29조원을 달성했으며, 광주는 4만7000명, 전남은 5만4000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이용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힘든 시기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우산이 공제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안전망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타 노조 “1공장 재가동해 생계 불안 해소”

9월부터 재가동 가능...하루 1만분까지 생산 전망 “산업은행·더블스타, 신공장 건설비 마련 협조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조합원 고용 및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1공장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현장관리자노조, 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금호지회 등 5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17일 발생한 광주공장 화재로 2500여명의 노동자와 2만여명의 가족이 생계의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조속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공장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곡성공장 정령공정에서 고무를 일정 정도 증설해 수급받거나 하남공단의 고무 제조업체에서 고무를 수급하고 반제품을 가져올 경우 1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1850명 중 500명의 노동자가 4조 3교대로 투입, 순환 근무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조는 불에 탄 2공정을 제외한 1공장은 9월에 가동이 가능해 내년 1월에는 하루 4000분, 이후에는 하루 1만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고무를 제작하는 주요 공정인 ‘정련’ 설비가 위치한 2공장이 모두 불에 탄 데다 1공장에 일부 제작 설비만 갖춰져

있어 1공장에서 고무 자체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순환식으로 일하며 재건이나 이전 등에 걸리는 시간인 2년 반을 버릴 생각이다. 임금이 줄겠지만 정상가동 시 예전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들은 또 사측과 정부, 산업은행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최대주주인 더블스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 “신공장 건설을 위한 비용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금호타이어를 중국 자본인 더블스타에 매각한 산업은행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긴급회를 통해 빛그린산단 이전 확정, 정장로 로드맵을 위한 노사 간 논의, 고용 안전, 산업은행 건설비용 마련 협조를 요구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



중흥그룹, 현장 안전한 여름나기 ‘총력’ 9월까지 캠페인...폭염 대응 수칙 준수 등

중흥그룹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6월부터 9월 말까지 폭염 재난 예방 활동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회사 임직원들이 함께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 외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현장을 찾아 휴게시설과 옥외작업자 휴식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

칙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단한 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및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 만들기 등 당부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사전 예방 활동과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앞서 지난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익산안전체험교육장에서 추락, 협착 등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배우는 체험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이스라엘-이란 전쟁 충격과 대비해야”

광주상의·광주경총, 유가급등·수출입 차질 등 우려

광주 경제계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과 관련,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중동은 세계 원유 수출의 주요 허브로 충돌이 발생할 때 마다 세계 산업계에 작·간접 충격을 가했다”며 “이번 사태 역시 여파가 국제 에너지 시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입 물류 전반

에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광주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고무제품, 냉장고 등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공급망이 위축될 경우 생산원가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화 대책, 수출입 물류비 및 원자재 확보 지원,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비상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기업들도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원자재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재고 전략 조정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국제 유가 급등과 해상운송 계약을 우려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7~10% 이상 급등하는 등 원유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유가 상승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정부와 광주시 등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진공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협의회체 결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8일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12개사와 지역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2기 HUG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패밀리기업은 (유)은진하이테크, ㈜이솔루션, ㈜무진기업, ㈜한아, 삼원에스티에스㈜, ㈜에스이, ㈜태현루트, ㈜케이에스산업안전협회, 예코피스㈜, ㈜와이에이치테크, 참바다영여조합법인, ㈜원지식품 등 12개사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공기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

기관도 동참했다.

‘HUG 협의체’에는 패밀리기업, 호남연수원, 유관기관 간 협업 및 동반성장(Hug) 의미와 ‘패밀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한다(Hope Ur Growth)’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HUG 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결성됐으며 향후 분기별로 개최돼 호남연수원 사업 운영방향 수립, 연수과정 기획, 현장 인재양성 예로서함을 수련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참석자 간 상거래를 시작으로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가 진행



중진공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1기 HUG Hope Ur Growth, 혁신 성장을 응원합니다! (2025. 06. 18(목) | 14:00~15:30 | 호남연수원 1022호)

한전KDN, 안전경영위원회 상반기 성과 점검·계획 논의

한전KDN은 최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KDN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안전문화 내실화 및 안전경영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진단과 주요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김용호 한전KDN 전력지능화안전본부장과 노동자 대표인 문창호 한전KDN노동조합 정책실장 등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4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안)과 2025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2025년도 상반기 안전경영계획 이행 실적, 2025년도 상반기 안전근로협약 체결 실적 등에 대한 평가와 논의 등을 통해 성과를 점검했다.

이승용 기자